

광주 출신 2009 대한민국 명장

전통-현대적 감각 결합 대중성 살려 3대째 맥이어 온 전통자수 지킴이



목공예 부문 기영락씨

대표가 작품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대중성. 지나치게 전통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도 아닌 현대적인 감각과 접목해 대중들이 친숙하게 사용되는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기 대표는 “쓰임이 중심이 되는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상업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 예술가로서 인정받되 대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자 함이다”고 말했다.

지난 1981년부터 공방을 운영해 온 기 대표는 1986년 아시아엔제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 ‘목각오리 과일꽃이’의 기념품 생산업체로 선정돼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후 광주공예품대전 최우수상, 전국 공예품대전 지식경제부장관상, 대한민국 디자인전람회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세계가 인정받게 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997년 광주대 인테리어디자인학과에 입학, 대학원까지 수료했다. 만드는 기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디자인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공부가 뒷받침 돼 환복(동근복)축면절삭 기법

과 목공예접목 기법으로 특허를 낼 수도 있었다.

기 대표는 “목공예 분야는 다른 미술 분야에 비해 인지도도 낮고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 분야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내 정혜숙(52)씨와 대화는 물론 출강하고 있는 광주대 학생들에게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많이 얻기도 한다는 기 대표는 “목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목재가공에 대한 연구와 개발, 가공기술의 보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수공예 부문 송현경 대표

“아름답고 곱디고운 우리나라의 전통 자수가 사람들 뇌리에 잊혀져 가는 걸 그냥 바라볼 수 없어서 40년이 넘도록 작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대한민국 명장’ 자수공예 부문에 선정된 송현경(여·64·광주시 동구 금남로) 수향한국전통자수 대표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대를 이어 3대째 전통자수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궁중자수, 육골자수, 베풀기 등 잃어버린 전통 자수를 알리는 데 평생을 앞장서온 것이다.

송 대표는 전통 자수 복원 뿐 아니라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작품들을 만들어 자수를 널리 알리고 있다. 과거에 그치는 게 아닌 현대적인 감각으로 자수를 재탄생

시키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활동으로 송 대표는 자수공예 작품전 등에서 56차례 수상하는 등 ‘명장’으로서 모습을 보여왔다.

송 대표는 “자수공예를 잘하는 것보다 전통을 잇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높게 평가해준 것 같다”고 겸손해했다.

송 대표의 자수 입문은 어머니로부터다.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바느질 솜씨로 맥을 이어오던 인근 지역 주민들의 혼수용품 자수를 도맡아 했고 이를 어려서부터 본 송 대표도 무명천을 잘라 십자수를 하면서 실력을 쌓았다.

이후 본격적으로 전통 자수 공부를 서울에서 하며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현대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해 광주대 디자인학과에도 지난 1999년 입학, 공부를 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수향한국전통자수를 운영하면서 44년간 전통 자수공예 알리기를 해온 만큼 후손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명장은 산업현장에서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해당 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기능인에게 주어지는



칭호로 지난 1986년부터 선정해 왔다. 명장에게는 증서와 휘장, 일시 장려금 2천만원이 지급된다. 또 명장 선정 이후 동일 직종에 근무하면 매년 기능장려금(95만~285만원)을 지급하고 해외 산업시찰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2009년 대한민국 명장은 목공예, 자수공예, 피아노조율, 생산기계 등 분야에서 모두 12명을 배출했다.

/글·사진=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한류 바람 대만·중국·몽골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알릴 터”

홍보대사 위촉 장서희



“대만, 중국, 몽골에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알리겠습니다.”

SBS 드라마 ‘아내의 유혹’의 여주인공 구은재 역을 맡아 열연한 인기 탤런트 장서희씨가 제3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국내외 관객을 ‘유혹’하고 있다.

장씨는 12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아내의 유혹’이 수출된 10여개 국가에 이번 전시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무용을 전공해서 평소 아름다운 디자인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국내 홍보는 물론이고 해외 활동을 통해서도 광주에서 멋있고 의미 있는 행사가 열린다는 것을 알고 싶다”고 덧붙였

다. 지난 1990년 MBC 19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입문한 장씨는 2002년 MBC 드라마 ‘인어아가씨’의 여주인공역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으며, 이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스타로 입지를 굳혔다.

한편 이번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9월18일 개막해 11월4일까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광주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또 장씨와 개그맨 김용만, 일본의 여장남자 뷰티전문가 이코씨가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소외계층 손·발 된 오치 주공 ‘돌봄 봉사’

14명 봉사원 60여가구 방문 목욕·청소 등 활동

영구임대단지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아동보호·일상생활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봉사’가 소외계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돌봄 봉사’는 대한주택공사가 지난 3월부터 근로복지기금 40억원을 들여 주부 돌봄 봉사원 1천명을 채용해 이를로 하여금 전국 126개 영구임대단지에서 거주하는 소외계층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광주·전남지역에는 120명의 봉사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주택관리공단 광주시 북구 오치동 주공1단지에는 14명의 주부 돌봄 봉사원이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매일 두 집을 방문해 목욕·청소·반찬해 드리기 등 이들의 손과 발 역할을 하고 있다.

주부 돌봄 봉사원 입장에서는 소정의 활동비를 받으며 주변 독거노인을 돌보게 돼 일자리 창출과 독거노인 돌보기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주공1단지 주민 정모(여·78)씨는 “매주 와서 돌봐주니 친자식보다 나은 점이 많다”며 “자식들이



마음이 있지만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부족한 점을 적극적으로 도와줘 고맙다”고 말했다.

노경선 관리사무소장은 “지난 5개월 동안 두오미들의 활동이 잘 뿌리 내려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이런 제도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12년간 시장 8명 보필... 광주 공무원의 ‘만형’

41년 공직생활 미감 김범남 광주시 비서실장



김범남(61) 광주시 비서실장이 12일 41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갔다.

김 실장은 지난 2007년 1월 3급 부이사관 자리에 서 물러나 서기관(4급)이 맡아왔던 비서실장에 임명돼 박광태 시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고, 최근 서비실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 소신있는 행보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1968년 공직에 입문, 41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 중 12년간은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모두 8명의 시장을 보필해온 그는 광주시 공무원들의 ‘만형’이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인간미 넘치는’ 대인

관계를 통해 인맥을 넓혀왔고,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면서 각 실·국·간 업무를 조정하고, 시장의 의중을 잘 살펴 보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41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과 동료 공무원, 언론인들에게 감사하다”며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8명의 시장을 보필했는데, 박광태 시장이 가장 남자다웠다”고 박 시장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다.

/윤현석기자 chadod@

전남대 언어교육원

장학생 연수 2년 연속 선정

전남대 언어교육원(원장 안병규)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정부초청 대학원 장학생 한국어 연수생 유치 기관’으로 서울대와 함께 선정됐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올해 외국인 대학원생 337명을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했으며 전남대 언어교육원은 이중 31명을 위탁받아 오는 9월부터 1년 동안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장학생들은 본인의 희망, 전공의 특수성, 한국어 능력, 본국에서의 활동도 등을 고려해 원하는 대학원에 입학해 석·박사과정을 밟게 된다.

/재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인사

- ◆광주시
 - ◇4급 전보 ▲자치행정과장 안기석 ▲노인복지과장 염범탈
 - ◆광주지방국세청
 - ◇사무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지도담당관 장길숙 ▲북천주세무서 조사과장 이경수 ▲의산세무서 감제지서장 김용수

‘방송작가 대부’

한운사씨 별세



드라마 ‘빨간 마후라’의 작가 한운사(86) 전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장이 11일 오전 별세했다.

고인은 드라마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0)와 ‘빨간 마후라’(1962), ‘서울이여 안녕’(1971) 등을 집필하는 등 드라마와 영화, 소설 등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한국문화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겼다.

특히 1964년엔 최초의 TV 일일극인 ‘눈이 내리는데’를 집필하는 등 196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였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동창·동문회

▲북성중 13회 동창회(회장 허건홍) 월례회=13일(목) 오후 6시30분 운암동 대추나무 회관. 062-514-0022.

▲북성중 14회 동창회(회장 이현규) 월례회=14일(금) 오후 6시30분 신창동 선일농원. 062-953-9008.

알림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광산청 소년지립생활관 호남지역 가출 및 위기 청소년보호시설=무료숙식, 심리치료, 자립 지원, 수시 입소가능, 12~22세 남

자. 062-953-6101.

▲광주대 풍수지리학 무료 공개강의=29일(토) 오후 2~5시 광주대 중앙도서관 5층. 수백·나경·입향론·지도상명당 등 이론과 현장 제시 (책자 무료 제공) 062-670-2161.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 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바꾸기 등(실버에 한함). 062-365-8228.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이동상담

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062-227-8877.

모집

▲문화 한글과정 자원봉사 여교사·학생 모집=성인한글 초급·중급·고급반, 중급검정고시반 등 월~금요일 오전 9~12시, 오후 2~4시. 062-951-5397.

▲원불교 문화센터 3기 회원 모집(9월 1일 개강)=서예(월, 수 오전 10시), 요가(월, 수 오전 10시), 다도(목 오후 2시), 독서논술지도(목, 오 전 10시 30분), 노래교실(화 오후 2시), 규방교육(화 오전 10시), 수심결 강의(수 저녁 7시 30분) 쌍촌동 원불교총서. 062-232-7223~4.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건강상태가 양호한

65세 이하 서구 거주자,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간호사, 장애아 관련 자격증소지자 우대, 아이돌보미 25명 모집. 5일까지 방문접수 서구 양3동 385-20 광주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062-369-0074~75.

▲사랑의 학교 문화 한글과정 자원봉사(여)교사 및 학생 모집=성인한글 기초·중급·고급반, 중급검정고시반(월·화), 한문, 기초영어반 모집. 교육시간 월~금 오전9시~12시 30분, 오후 2시~4시. 062-951-5397, 011-9456-6037.

▲전국아파트연합회 아파트 경비·설비원 모집=광주시내 아파트에 근무할 60~65세 경비원 수시로 모집. 062-236-0032.

▲김경자 국악학원 국악지도사 모집=국비지원 어린이 국악지도사 양성 모집. 011-617-7713.

▲우리문화 사랑회 회원 모집=전통화를 애호하는 20세 이상 일반

시민. 매일 24일 월례회 및 문화담사, 학술발표회 등 예정. 016-686-6491.

▲푸른학당 자원봉사 및 학생 모집=문화교육(한글과정), 초등·중등 과정, 검정고시반. 062-529-1188, 010-9940-1769.

▲디딤돌 장애인아학 교사·학생 모집=초·중·고 졸업준비하시는 장애인 및 수업을 만들어갈 선생님, 오차4거리에서 도보로 3분. 010-3423-1567.

▲스키동호회 실천클럽 회원 모집=광주에 거주하는 30~40대 남녀. 011-635-1400.

▲광주FC 축구회원 모집=매주 토요일 유모차 운임도 제공. 017-656-3431.

▲하마물 장애인지립 생활센터 장애인 사물놀이 모집=장구, 징, 켈리, 북 함께 하실 장애인(손이 자유로우신 분), 약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기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

381-8254, 011-9374-7482.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풍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목·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30분), 중급반(월·저녁 7시30분). 062-523-0474, 010-2658-0876.

장례식장 201호실. 062-670-4444.

▲박기환씨 별세 남호·현호·항미씨 부친상=발인 14일(금) 화동 금호장례식장 402호. 062-227-4000.

▲김외형씨 별세 원만·원규·원희씨 부친상=발인 13일(목) 화동 금호장례식장 401호. 062-227-4000.

▲정금례씨 별세 고광하·광두·광자·광호·광금·복효씨 모친상=발인 13일(목)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김용식(전 전남대 교수)씨 별세 철중(개인사업)·건중(재미 치과의사)·미경씨 부친상 박현주(미래셋 그룹 회장)씨 부부상=발인 13일(목)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두번 슬로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 신진국영 3대시스템 프리드

현대중합상조

가입문의 1566-4499